

나의 수행법 (끝)

〈법화경〉 사경기도 체험기 - 최태숙 (下)

평화통일불사리탑을 다녀온 후에 일어났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소의 저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발원이었다.



다. 하지만 만배는 처음이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 사경을 전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다. 그리고 곧장 '부처님께 열심히 <법화경> 전법을 하겠습니다'란 발원을 올렸다. 가슴이 울컥 했다. 허겁지겁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엄마 왜 그리세요?"라며 물었다. 그냥 난 눈가에 맺힌 눈물만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다. 전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왕 마음먹은 것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기도에 들어갔다. 그러자 어느 순간 머리 아픈 것은 없어졌다.

그렇게 시작한 만배. 도반들의 격려에 힘입어 만배를 거뜬히 회향했다. 도반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 비로소 알게 됐다.

만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안일을 모두 해놓았다. 짙에 자주 나가는 것에 대

다. 하지만 만배는 처음이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법화경’ 사경 전법 발원 올리며 환희 도반들과 1만배 수능기도 함께 해

했다. 생활을 좀더 규모있게 해서 시간을 만들면서 매일 사시에 불시간에 예불을 보면서 신심을 다졌다. 도반들과도 수행담들을 나눴다.

해 가끔씩 삶은 내색을 보이던 남편도 지금은 많이 변했다.

올해 경산도량 백중기도의 과제였던 <금강경> 사경집 두 권을 남편에게 권했다. 남편이 <금강경> 사경을 해했다. 그런 남편이 언젠가는 나와 함께 경전공부를 하길 발원해본다.

그러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자녀를 둔 고 2학년 어머니들끼리 내년의 수능시험을 대비해 미리 기도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행복이란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방송을 통해 들은 종범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신(信)·해(解)·행(行)·증(證) 경산도량의 4대 가르침대로, 봉사와 수행과 공부를 병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변화된 모습. 난 늘 당당하게 포교할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미리 기도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만배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법화경> 사경기도 전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과 가족들, 그리고 좋은 도반들을 감사한다. (끝)

그런데 미리 기도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만배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법화경> 사경기도 전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과 가족들, 그리고 좋은 도반들을 감사한다. (끝)

■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회장

그런데 미리 기도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섭 시인에게 듣는 '禪詩로 마음공부'

언어란 본래 부질없는 도구다. 특하면 오해를 낳고, 결결로 샌다. 때론 동판자같은 소리를 허거나, 곳곳에 '분별의 지뢰'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선(禪)은 말길도 생각의 길도 끊어진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을 살림살이로 한다. 그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선시(禪詩)는 어떨까? 출현이 깨닫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찰나의 깨침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말하되

말하지 않고, 쓰지 쓰여 지지 않는 선시는 내면의 속살을 내보인다. 그래서 선시는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비추는 거울로 불린다. 12월 5일, 선시 연구의 대가 이원섭 원로시인(83·사진)을 찾았다. 5년 넘게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숙명여고 교사재직 시절 가르쳤던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선시공부모임 '민들레'를 이끌고 있는 이 시인에게 '선시로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나”를 깨고 선사의 심경 느껴보세요

깨달음의 내밀한 세계를 상징과 함축의 언어로 표현하는 선시. 과연 선시로 마음공부가 가능할까?

“가능해요. 마치 선어록으로 마음공부하는 이치와 같아요. 하지만 위험부담이 따르지요. 선시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의 장애가 되기도 하니까요. 선은 불립문자에 서 있어요. 언어를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체득하려는 것이 선의 취지지요. 옛날 선사들은 제자들이 선의 이치를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 등이라 답했어요. 사실 이조차도 선의 본지에서 볼 때, 이미 언어로 표현했기에 빛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인은 말씀을 흐렸다. 대답을 재촉했다. “아무리 적절하게 선을 시로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뜰 앞의 잣나무'라 답한 것에 선사의 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세계를 언어로써 '깨달음의 힌트'를 준 것에 불과한 거죠. '뜰 앞의 잣나무'라 말한 선사의 심경을 파악해야지, 언어 표현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아무 것도 안 돼요.” 이 시인은 “선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강조했다. 황벽 선사가 중국 당대 재상이었던 배후 거사의 선시집을 받아마차, 보지도 않은 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일화를 예



분별을 일으켜 은산철벽이 돼 있는 거죠. '나'란 존재를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죠. 선시 읽는 안목을 키우는 제일 덕목은 무아를 체득해야 해요. 선사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요. 처음부터 언어를 포기해야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 시인은 “선시의 참 뜻을 헤아리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단히 선시를 한문으로 읽어야 그래야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종사 이해를 깊이해야 선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인은 남의 집 답장 안으로 넘겨졌듯이 선시를 읽으면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찾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시를 해석으로 따져 지적으로 해부하면, 살아 있는 사람을 잡아서 생체 해부해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인은 제자들이 마음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시 하나를 소개했다. 중국 임제종 오조법연 대사 스승인 백운수단(白雲守端?~1072)의 선시를 예로 들었다.

일권권도황학루(一拳拳倒黃鶴樓) 일척척번앵무주(一踢踢翻鸚鵡洲)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때려 부수고,

언어표현에 매달려선 안돼 한문·선종사 이해 선행해야

한 발길질로 앵무주를 걸어서 뒤집는다. “황학루는 양자강이 흐르는 중국 무창의 유명한 유곽이고, 앵무주는 그 유곽이 있는 모래섬이에요.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들이죠. 그런데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때려 부수고, 한 발길질로 앵무주를 걸어서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화두와 관련돼요. 황벽 선사에게 30방 얻어맞고, 대우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은 임제 선사와 관련된 선시죠. 이 선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선기를 표현했어요.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선시죠. 기성의 가치체계를 전부 때려부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속의 가치는 물론 불교의 가치체계를 전부 부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일상에서 허덕거릴 때마다 수단 선사의 호탕한 선기를 상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글·사건·김철우 기자

이원섭 시인은? 192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해학전문학교(중국어 전신) 불교학과를 나온 후 숙명여고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948년 <예술조선> 제2호에 '기산부(箕山圃)'가, <문예> 제2호에 시 3편이 서경주 시인에게 추천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전국불교신도회 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장을 지냈다. 500여 편 선시를 간결하고도 정교한 언어로 풀어낸 <깨침의 미학>을 발간했다.

논리로 따지면서 읽지 말고 선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로 들며, 그 깨달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마음공부에 있어 선시가 왜 중요할까? “깨달음에 가까워지려는 인연을 지을 수 있지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선은 지극하고 당연한 말이라도 모두 배척하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차도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 이면에 깔려있는 침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선시를 통해 자기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요.”

순간, 궁극중 하나가 푼 울라왔다. ‘선시를 읽는 것도 화두 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중국 위산의 제자인 영은 선사자 쓴 선시에서 ‘어느 날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다’는 구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선시에서는 ‘복숭아 꽃을 한번 본 뒤 다시로 위심하지 않는다’란 말이 나오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또 ‘그 뒤에 어떤 경지가 들어있는지’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은 화두를 깨지는 것처럼 어려워요. 선시에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처럼 지성이나 감수성으로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무엇이 들어있지요. 선시 공부하는 것이나 화두 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선시공부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니까?” “선시에서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입장에서 바로 ‘일초직인 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즉 한번에 부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간다는 돈오(頓悟)의 가르침이 현저히 나타나 있지요. 그래

서 선시는 일종의 화두처럼 되지요. 영은 선사의 선시에서 ‘복숭아꽃이란 무엇인가’ 한 번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지고 들어갈 때, 선시는 화두가 된 거죠.”

그럼, 선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길러질까? “선사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려면 스스로 선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가는 방법 밖에 없어요. 사실 선사들이 쓰는 언어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달라요. 마치 처음에 화두를 대할 때 누구든지 놀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두가 수행자의 지성을 완전히 열어 버리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경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화두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선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화두를 떠나 선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로 따져들면서 읽지 않아야 선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선적인 사고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은산철벽(銀山鐵壁)이란 말은 꼭 딱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요. 스스로

아듀 2005, 웰컴 2006 !!! 제2호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심성수련, 명상수련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학에 이어 동계방학에도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명상캠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며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수행하면서 서원과 목표를 세우고,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5년 12월 29일(목) ~ 2006년 1월 1일(일), 3박 4일
장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충북 괴산)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부모님과 교사도 참가 가능)
참가비 : 150,000원(겨울간 『불교와문화』, 월간 『불광』 구독자 10% 할인)
진행 : 김남선(교사, 제1회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캠프 및 심성프로그램 디스 진행)의 10명

- 목표
- 부처님 일대기 읽기
-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기
- 부처님의 일대기를 심성수련, 명상수련, 묵묵 열불수련
- 목표와 서원이 있는 삶의 계획 세우기
- 희망찬 2006년 새해계획 수립하기, 희망 발원하기
- 내 안의 참된 스승 찾기
- 자신과 타인 이해하고 수용하기
-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갖기 및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기

- 절 명상 · 묵묵 열불 명상 · 진언을 통한 자비 명상 · 음악 명상
• 참회 명상 · 화해 명상 · 축복 명상 · 버리기 명상
• 죽음 명상(유서 쓰기) · 불꽃 명상 · 관상 명상 · 나무기 명상, 요가 등

○ 참가 접수 및 일정 안내
겨울간 불교와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02-719-2606
월간 불광 www.bulgwang.org 02-420-3300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클리닉

-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선 괜찮다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대형자석
1. 크기: 지름 20mm 의류용 원형자석 2. 수량: 30개
3. 특징: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류용 특수자석

▶ 소형자석
1. 크기: 지름 10mm 의류용 원형자석
2. 수량: 30개 3. 특징: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류용 특수자석

▶ 반 고
1. 크기: 대형반고 - 넓이 50mm 길이 10m
소형반고 - 넓이 25mm 길이 10m
2. 특징: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인체에 무해한 의류용 반고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류용자석 개발!!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고 1물 + 소형반고 1물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혈압,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가톨릭의대
최정호(여의도 성모병원), 이창욱(강남 성모병원) 교수팀
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마크 조지 교수팀의 기존 치료방법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우울증, 강박증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우울증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병들 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인 생리통 환자들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드러버 박사가 루소스등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연 해졌으며, 장보통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악열감, 자발, 자발같은 통증을 알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까운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인제대지부 부임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시시오!
성심성직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치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홍현희)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 E-Mail : jibub3110@hanmail.net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자기장연구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